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총평

- 사 업 명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수필)
- 회의일시 : 2019. 1. 30(수) 10:3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수필 분야에는 다양한 글쓰기 양식을 보여준 작품들이 대량으로 출품되었다. 전통적인 수필의 양식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형식의 수필에서부터 웹툰, 일러스트, 사진을 가미한 파격적인 글쓰기 방식, 그리고 개인의 일상을 담은 글부터 자신의 특수한 직업에 대한 조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글쓰기의 향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수필 분야의 심사과정이었다.

심사자들은 전통적인 수필의 형식을 파괴하는 글쓰기 양식들을 수필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인터넷과 SNS 시대의 글쓰기 양식이 전통적인 종이책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 숙고했다. 때로는 전통적인 수필의 양식을 고수하는 모범적인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보면서 안도했지만, 또한 새롭고 파격적인 언어로 자신의 일상과 기억을 드러내는 글쓰기 양식에 환호했다.

우리는 전통적인 수필 양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우려와 변호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장르가 그렇듯이 수필도 그렇게 새롭고 낯선 글쓰기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장르의 긴 호흡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어떤 깊이 있는 사유, 혹은 수일한 문장, 또는 진중한 기억, 때로는 풋풋한 감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양식들이 다양했던 만큼, 저자들의 직업도 실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시인, 소설가, 수필가 같은 기성문인들의 작품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으나, 글쓰기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작가들 못지않은 역량과 교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은 또한 인상적이었다. 바야흐로 대중들의 글쓰기가 대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쓰기 시대의 첫 번째 양식이 수필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은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자, 새로운 시대가 실현시켜 준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여행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더 잘 말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심사과정은 피상적인 여행과 천편일률적인 일상에 대해서 남들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언어를 버려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 선정되신 저자들에 축하를,

아쉽게 선에 들지 못한 분들께는 따듯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